

투데이 칼럼

강한 자립심이 아이의 미래다

자립심은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힘'이 있다. '엄마, 나 이제 친구하고 놀아도 돼요?' 라고 묻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듣는다. 몸집은 커졌는데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대부분 엄마한테 물어본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부터 찾는다. 요즘 아이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다.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아이도 종종 있다.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의 도움에만 의지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치열한 경쟁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나이가 들어도 '어른아이'가 되고 '캥거루족'이 되고, '비바보이'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교육·경영학자 스티븐 코비는 '독립심 강한 아이로 키우는 육아법'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 되기 위한 첫번째 습관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부터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경원대 김순혜 교육대학원장은

21세기는 '강한 아이가 성공한다.'고 단언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남다른 능력을 펼치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강한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아이다.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다. 엄마 손에 끌려 다니는 아이는 조그만 일도 해낼 수 없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고난극복을 하는 아이만이 결국 원하는 꿈을 이룰수 있다. 엄마가 변하려면 우선 아이를 간섭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 김순혜 원장은 또,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모진 엄마론 5원칙'을 주문했다. 첫째, 반드시 언행일치를 하라. 둘째, 칭찬·격려는 구체적으로 하라. 셋째, 야단칠 때, 절대 화를 내지마라. 넷째, 벌줄 때는 말을 적게, 소리는 낮추고, 얼굴을 쳐다보라. 다섯째, 처벌은 미



김재훈 전 완주중앙초등학교장

리 약속하라. 부모가 아이를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알아서 행복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들 70%가 부모의 결혼자금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그 중에는 결혼후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법이다.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 네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스스로 할 일을 맡겨줘라.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맡겨준 후, 성공했을 때 야근없이 칭찬한다. 둘째, 칭찬과 격려를 하라. 칭찬받은 아이는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만약 잘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며, 다독여준다. 셋째,

사회성을 길러줘라.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선 사회성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좋다. 넷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일은 아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를 꺾게 되고 주눅들게 한다. '자녀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답은 없다.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상황을 겪으며 깨닫고 배우는 선생님들도 '해답은 있되 정답이 없다'며 아이교육 문제로 늘 고민이 많다.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이다. 아이가 처음 만나 관계를 맺는 사람이자 모든 행동의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과 실천으로 아이에게 강한 자립심을 키워줘야 한다. 부모 먼저 모범을 보이며 자립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자식교육은 그렇게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 자식이 공부할 때 부모도 공부하고, 자식이 힘들어 할 때 부모도 같이 힘들어 하며 동참할 때, 자식은 결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없다. 아이의 참된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부모임을 명심하고, 아이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사설

일자리 구하려면 해외로 나가라고 해서야

미취업자들이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다. 취직하기가 절박처럼 느껴진다는 호소들이다. 젊은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지방공무원만해도 그 경쟁률이 평균 25:1이나 된다 말이다. 응시자 대다수가 좋아하는 행정직은 그 경쟁률이 상상 초월이다. 경쟁률이 수백대 일이나 벌어진 일이 다들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공무원되기 하늘의 별 따기이다. 사정이 이러니 젊은이들이 N포 세대니 '헬조선'이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가진자들의 욕심이 도를 넘고 있다. 그들 때문에 희망을 말하고 싶어도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움킨 것을 꼭 쥐고서 버리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진자들이 돈을 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용 안정도 도모할 수 있으면만 많이 아쉬운 일이다. 어쩌면 가진자들은 열악한 고용현실을 이용해 또 다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남의 일 이야기 하듯 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도대체 무슨 심보로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쫓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투이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비아냥거리듯 말하고 있다. '나가 가라 하와이' 같은 말이 그것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전북도 또한 지역 젊은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한다. 해외로 나가라는 식으로 냉정하게 말해서 안된다.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속상하는 일인데 해외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실제로 어떤 젊은이들 중에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법도 하니 말이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지역의 고용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제 관행적인 발표로 입장 곤란한 숙제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도 해서는 안 된다. 미취업자들의 고통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더 힘써 달라는 당부이다.

도내 건설업체의 현주소 똑바로 봐야

도내 건설업체들의 현주소를 똑바로 봐야겠다. 도내 건설경기가 계속 침정하니 말이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말을 또 다시 말해야겠다. 지금 남아있는 건설업체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형편이 어렵다는데 그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면서도 열려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건설업체들의 현주소를 알려면 그 형편부터 살펴야 한다. 어쩌다 밝은 소식이 들릴 때면 도내 건설업계에도 모처럼 바람이 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다. 기대가 관한 것으로 드러나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자리가 늘게 됐으니 발전의 증거가 아니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쪽만 보고서 한 주장이었다. 도내 건설업계에는 일자리 창출이 적었던 데다 건설 경기로 인한 돈도 지역에 많이 돌지 않았던 것이다. 저번에 국토부로부터 지적을 당한 것은 도내 건설업체의 현주소

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열 개 회사 중에 세 개 꼴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러니 하는 말이다. 아마도 그같은 형편은 지금도 그대로 일 터이다. 꽤 일언하고 도내 건설업체의 유명 인사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그게 좀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일부러 망각하려고 해선 안 된다. 도내 건설업체가 활황해야 지역 경제도 활기를 보일 터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도내의 건설업계 전체가 계속 비관론으로 물리고 있다는데 답답한 일이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호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결과 국토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도내에는 수두룩하다. 그러므로 지역 경기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전북도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현주소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한 개의 일자리도 아쉬운 고장이 바로 우리 지역이다. 전북도는 도내 건설업체들을 부활하기 위해 마음을 써줘야겠다.

독자제언

고장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바로 고쳐야

장애인의 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관내에서 횡단보도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라는 의문과 함께 서둘러 출동 해 보니 시각장애인을 음향신호기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화재원인을 모르지만, 시설의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의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 줘 보행을 돕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전북지역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신호교차로 2107곳 중 360곳(17%), 신호교차로가 있는 횡단보도 10곳 중 8곳

은 시각장애인들이 건너지 힘든 곳으로, 신호가 없는 일반 교차로와 규모가 작은 도로 등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며, 있어도 고장 난 기기가 많아 이용률이 떨어지고 제대로 유지보수도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도 보행자 중에 하나이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사회적 배려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회배려시설물을 잘 유지·보수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횡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틀이 될 것이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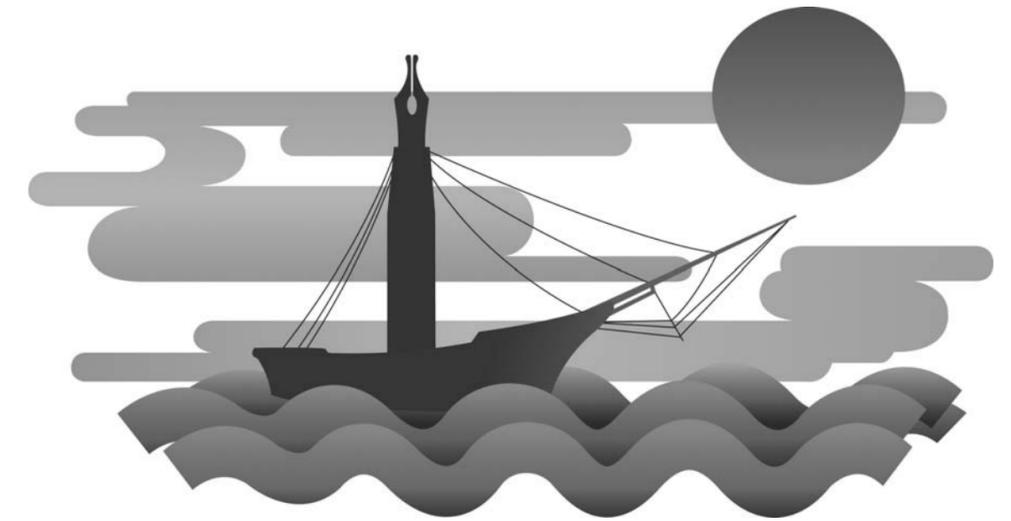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 높아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자동차, TV,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국내 인구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페이스북 가입자는 13억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는 약 3700만 명이며 하루 평균 60억 건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저변 확대는 생활의 편리함과 활력소는 물론 인간의 삶의 질 자체를 운명하게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운전 중이나 보행 중 사람의 고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였고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등 각종 증후군과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눈길을 팔다가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걷다 보면 시야가 10% 정도로 좁아지고 청각 능력이 50% 이상 떨어져 그만큼 사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중 60%가 거리를 걸다가 스마트폰으로 게임, 인터넷, 문자 메시지 등을 한 적이 있고, 23%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충돌 경험이 있다고 한다. 눈어 선전권(先進權)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가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김병태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